



◦ 미국 DAP가격 급격한 인상

미국의 DAP 수출가격이 요즘 들어 급속도로 인상되는 경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실세비 10달러로 상승될 전망이다. 지난달 하순, 국제 비료협회(IFRA)의 리스본 총회에서 관계자가 정보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국 카길의 인산질비료업체 매수로 수급조정이 진행되어, 가격 통제도 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IFA 리스본 총회에서 교환된 일반정보교환에서는, 미국 DAP 시황에 대해서 카길의 기업 매수와 과점화의 심화 등으로 인상이 확실하다는 견해가 일반적 이였지만, 관계자의 얘기 를 종합해 보면, IFA에서는 미국 DAP 시황에 대해서 현행보다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것 이 일치된 의견이다.

가장 큰 이유는 카길의 업체 매수문제, 카길은 최근까지 인산질비료 업체인 멜베리를 매수한 것에 이어, 팜랜드·하이드로의 매수에도 각서를 조인. 향후, 세부사항 등을 조율하여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매수에서 카길은 멜베리에 대해서는 황산만을 생산하고, 인산질비료는 조업을 동결, 팜랜드·하이드로에 대해서는 향후의 협의에도 연관되겠지만, 인산질비료 생산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DAP 수입의 증대전망도 상승요인의 하나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무역의 문호개방이 되고, DAP도 작년 45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는 점, 미국의 신농업법 성립으로 작부면적이 옥수수에서 4%증가(대두에서 감소), 총체적으로는 증대하여, 비료의 수요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IFA리스본 총회에서는, 미국 DAP가격에 대해서 급속도로 인상하고, 시황적으로는 현행에 비해 앞으로의 동향은 10달러 이상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로써는 미국 DAP시황이 실제로 어떻게 추이될지, 한편으로는 환율변동문제도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는 충분하고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년 6월 3일 >

◦ 중국, 요소수출 해마다 증가 추세

중국은 요소의 대외수출에 대해서 향후 100만톤을 돌파하고, 100백만톤 이상의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관계자가 지난달 하순 IFA 리스본 총회에 출석, 일부 소식통의 견해를 바로잡은 것에 대한 견해로, 수출은 작년의 100만톤 상당의 실적에서 향후에는 100만톤 이상의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 요소를 수출과 수입도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는 130만톤 이상의 상당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일환으로 수입 할당 60만톤 규모를 인가, 실행하고 있다.

중국은 요소에 대해서, 수출, 수입에도 물두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까지의 100만톤 수출에서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국의 요소사업은 자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 수입에도 몰두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몇 년 전까지의 대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요소의 국내생산에서 채산이 맞지 않는 원유 등의 원료사용에서 썬 석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원료 전환책을 쓰고 있는 듯하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년 6월 3일 >

◦ 미국 수출업체, 인도정부에 DAP 보조금 감축 요구

미국 인산 비료 거래 위원회(ATPC)는 Rs 1,700/t(\$35/t)에서 Rs 1,350/t(\$28/t)에 이르는 수입 DAP에 대해서만 농부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한 인도의 결정에 이은 법적 조치에 위협을 가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수입 비료의 두 배가 넘는 Rs 3,400/t(\$71/t)이다.

ATPC 대변인 마이크 람은 이렇게 말했다. “인도의 DAP 보조금 계획은 차별적인 것이며

\$

경제적으로도 혼명하지 못한 조치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국제 무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ATPC는 인도의 DAP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법률적 조건과 WTO 규약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은 최근의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수입 철강에 대한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으로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10년 간 인도에 대한 미국의 DAP 수출량은 평균 110만 ~150만t/a이였다. 하지만 지난 2년 간은 인도의 2단계 보조금 제도로 인해 500,000t/a 이하로 떨어졌다.

인도의 비료 산업은 완전히 인광석과 암모니아의 수입물량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 인도의 화학물질 및 비료부(The India 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는 미국 정부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수준이 WTO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ASIAFAB Spring 2002 >

◦ 호주의 Plenty River, 큰 규모의 공장건설 목표

호주 서부의 버럽 반도에 암모니아/요소비료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인 Plenty River 주식회사는 그 프로젝트에서 Chambal을 시작한 것에 이어서 건설이 제안된 시설의 규모를 암모니아 2,000 t/d 및 요소비료 3,200 t/d로 늘리기 위해 2001년 4/4분기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회사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해당 계획의 계획된 주식 보유 예정자들의 요구 사항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롭게 암모니아 잉여물량 70,000 t/a와 함께 요소비료 연간 105만 t/a의 비율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Plenty River는 Chambal를 철수한 후에 2002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지원 중단과 함께 공장의 시기가 “일정한 시기가 지연” 되었고, 2005년 5월에 위탁할 계획임을 인정하고 있다.

\$

또 공장의 주식 지분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합작 투자자를 찾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Krupp Uhde는 암모니아 기술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Stamicarbon/Norsk Hydro는 요소비료 생산 및 결정화 기술 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Krupp Uhde는 계약업체 이면서 프로젝트 주식 보유자인 Thiess와 협력하여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

< ASIAFAB Spring 2002 >

◦ 인도 비료생산업체 Oswal, 호주 암모니아 공장 건설 인가 획득

인도의 비료 생산업체인 Oswal Chemicals and Fertilizers는 호주 정부에게서 서부 버럽 반도에 설립하기로 계획된 \$760,000 t/a의 암모니아 공장건립 인가를 받았다.

Kellogg Brown & Root 기술을 사용하는 SNC Lavalin이 건립할 예정인 A\$700m(미화 \$365m) 공장은 2004년 중반에 완성되면 세계 최대의 암모니아 공장이 될 것이다.

제품 판매는 전량 Norsk Hydro에서 담당할 것이다. Oswal은 인도 Paradeep에 있는 거대한 DAP 기계에 필요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해당 기계의 생산능력은 2002년 중반에 300만 t/a에 이를 것이다.

지난해 Oswal은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게서 새로운 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불하받았으며, Northwest Shelf에 있는 Harriet 가스전의 가스 개발 컨소시엄인 Harriet 합작 투자 회사와 가스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버럽 반도는 Plenty River 암모니아-요소비료 공장 개발 예정지기도 하며, 예정된 수많은 다른 가스기반 화학 프로젝트는 인도 생산업체인 Chambal이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관련되어 있었다.

< ASIAFAB Spring 2002 >

◦ 중국, 중부지역에 요소비료 공장 건설

중국 동서부를 연결하는 엄청난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서부의 가스 생산 지역과 동부 해안 지역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려는 것이며, 이미 중국의 하위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

Ningxia Fengyou Chemical 주식회사는 내몽고와 가까운 Ningxia Yinchuan의 북부 도시에 700,000 t/a의 암모니아-요소비료 공장 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파이프라인은 2003~2004년경에 Yinchuan까지 연결할 계획이며, 2004년에 암모니아-요소비료 프로젝트를 위한 시험 가동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금조달의 효용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회사에서는 외국 협력 회사에서 투자의 50%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2년 말을 이러한 계획들을 완료하기 위한 최종 시한으로 정했다.

< ASIAFAB Spring 2002 >

◦ Omifco, 암모니아-요소 공장단지 건설 목표 서명

마침내 장기 오만-인도 비료 회사(Omifco)에 대한 재정지원 협정 및 의무인수 계약이 서명되어 2005년 완공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각각 25%씩의 지분을 가진 인도의 합작사인 Krishak Bharati Cooperative(Kribhco) 및 인도 농민 비료 공동체(Iffco)와 나머지 지분을 가진 오만의 석유 회사가 체결한 \$970m 합작 투자 회사는 요소비료 165만톤과 암모니아 잉여물 250,000톤을 생산하는 트윈 트레인 암모니아-요소비료 공장단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금융 구조에서는 2 : 1 부채(평등 분할)를 필요로 하며, 지난 해 인도 합작사들은 각각 필수적인 \$80m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인도 정부에서는 \$140/t에서 \$105/t로 줄이는 15년 간의 요소 비료 의무 인수 계약에 합의했으며, Iffco에서는 \$100/t F.O.B에 15년 간의 암모니아 계획에 합의했다. 한편에서는 건설 계약에 1999년부터 소급해서 재정 지원을 했던 Snamprogetti 및 Technip 주도 친소시엄이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계획은 2002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2004년 말에 공장을 완공하고 2005년 초에 시험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ASIAFAB Spring 2002 >

◦ 독일 KFG, 두 개의 회수기 주문 제작

독일 St. Ingbett-Rohrbach의 Krupp Fördertechnik GmbH는 요소 처리를 위한

\$

문형 회수기 공급 주문을 두 개 받았다.

첫 번째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주문한 것으로 중국 하이난성의 Kellogg 요소비료 공장에 사용할 것이며, 350 t/h의 요소비료에 대한 설계 회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문한 두 번째의 것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요소비료 저장 시스템과 PT Pupuk Kalimantan Timur이 운영하는 공장에 사용할 1,100 t/h 기계에 대한 주문이 될 것이다. 두 개의 회수기는 모두 2002년 말에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 ASIAFAB Spring 2002 >

◦ 호주 WMC, 최소비용을 이용한 생산력 증대 연구

호주의 서부 광산 주식회사(WMC)는 올해 최소비용으로 생산능력을 약 110만톤으로 증대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기 위해 퀸스랜드 Phosphate Hill에서 자사의 DAP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85%는 DAP 생산능력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MAP가 될 것이다. WMC에서는 2003년 말까지 생산능력을 200,000 t/a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ASIAFAB Spring 2002 >

♣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 R 레카르트 > - 방법론 셔설 중에서